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년 6월 pp.127~154
한국세무학회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와 세무학교육

정연식*

<요 약>

2005년 11월에 경영학교육의 발전과 경영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설립되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는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학과, 이들 학과들과 같은 학부나 대학에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25%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인 학과, 학과 명칭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 등을 모두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 중 한 학과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교 전체를 인증하지 않는 기관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은 경영전략,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 전통적 경영학 분야의 과목을 최소한 5개 분야 이상, 총 18학점(3학점 기준으로 보면 6과목임)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들의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경인원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세무학과들은 경영학사를 수여하고 있고,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 분야 과목을 다수 개설함으로써 한국경영학교육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를 제외한 경영학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학의 학문 특성과 세무학과의 교육목표를 검토하여 세무학과에서 회계 이외의 경영학 과목을 4분야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님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인증 대상에서 세무학과를 제외하거나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경영교육, 인증제, 경영학, 세무학, 세무학과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 joshua2@kmu.kr, 011-529-4847

논문접수일 2008년 4월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I. 서 론

2005년 11월에 경영학 분야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경영학교육의 발전과 경영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하 ‘경인원’이라 함)이 설립되었다. 경인원은 설립과정에서 (사)한국경영학회와 한국경영대학(원)장협의회로부터 적극적인 후원과 주인을 받았으며, 국제적 경영학교육 인증기관인 미국의 AACSB International과 유럽의 EFMD로부터 후원과 자문을 받았다.¹⁾

경인원이 시행하고 있는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이하 ‘인증제’ 또는 ‘경영학교육인증제’라고도 함)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행해 오던 학문분야 평가 중 경영학 분야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제도로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경영학을 교육하는 많은 대학들이 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²⁾

경인원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인원이 제정한 한국경영학교육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함)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기준에는 교과과정, 교수, 학생, 강의 등 경영학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양적, 질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각 대학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경인원의 인증기준에서는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이 전통적 경영학 분야의 과목을 최소한 5개 분야 이상, 총 18학점(3학점 기준으로 보면 6과목임)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경영학 분야는 경영전략,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을 말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영학과들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이미 전공필수로 개설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영학과 이외의 경영 관련 학과들 중에서는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학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인원의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는 원하지 않는 대학은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학은 해당 대학 내에서 경영학을 교육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참여하여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증 방식을 경인원은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경인원에서는 이러한 참여 대상 학과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학과, 이들 학과들과 같은 학부나 대학에 소속된 학과,³⁾ 전공과목 중 25%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인 학과, 학과 명칭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 등을 모두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1) 한국경영교육인증원(2007.8)

2) 2007년 8월 기준으로 71개 대학이 경인원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경인원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인원의 회원으로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인원의 경영학교육인증제에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3) 다만,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와 신입생 모집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세무학과들은 거의 대부분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세무학과가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면 세무학과에서 경영학 과목을 5분야 이상 최소 18학점 이상 전공필수로 개설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교 전체가 경인원의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 만약 전공필수 과목에 문제가 없는 경영학과 등에서 경인원의 인증을 학과 발전 또는 대학 발전의 기회로 여기고 강렬하게 인증제 참여를 원한다면 같은 대학교 내에서 인증제 참여와 교과과정을 놓고 학과 간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는 비단 경영학과와 교육의 질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학과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인증 세부기준들을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경영학 분야 전공필수 요건으로 인해 경영학과 이외의 여러 학과들이 인증제 참여를 기피하게 된다면, 결국 해당 대학교 전체가 인증을 획득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경영학과를 포함한 모든 경영 관련 학과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들의 편제와 학위명칭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 인증 대상 여부 및 전공필수 과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개요⁴⁾

1. 인증제의 목표

경인원은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목표로 ① 한국 경영 교육의 질 향상, ②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체계적 관리, ③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특성화, ④ 수요중심 경영교육의 체계화, ⑤ 성과중심 교육관리, ⑥ 자발적인 참여 유도, ⑦ 외부 인증 및 평가기관의 기준과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인증대상

가. 기관인증

경인원은 한국경영학교육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교육부가 인가하는 4년제 대학교(이하 “교육기관”)로 하고 있다. 즉, 경영학을 교육하는 단위 학과나 단과 대학 또는 단위 프로그램이 아닌

4) 인증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2006.11), 한국경영교육인증원(2007.8) 및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홈페이지 FAQ, 답변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다만, 본 연구가 2008년 4월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후 며칠 뒤에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는 홈페이지 FAQ 코너의 모든 질의응답 내용을 삭제하였음.

해당 4년제 대학교가 인증 신청 주체이고 인증 대상이 되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⁵⁾

나. 인증 대상 학과 또는 전공

경인원에서 제정한 인증기준과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인원의 인증제에는 다음의 학과들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교 전체가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세무학과 또는 세무학전공들은 아래 항목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1)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대학 또는 학부

경인원은 교육기관이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대학 또는 학부(과)를 포함하여 인증을 신청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⁶⁾ 즉, 한 교육기관 내에서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이나 학부 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특정 대학 또는 학부(과)를 인증 신청에서 특별한 사유로 제외를 원하는 경우, ‘특정 대학 또는 학부(과) 인증 제외 사유서’를 경인원 예비심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후 교육기관 내 일부 대학 및 학부(과)에 한해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외 인정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해서 특정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관 내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대학 또는 학(부)과가 다 동시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 교육기관 내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대학 또는 학부(과)가 복수 캠퍼스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대학 또는 학부(과)를 같이 인증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캠퍼스 간 교수총원과 학생선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캠퍼스 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 학부(과)에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

경인원은 교육기관의 한 학부(과) 내에서 경영학사를 포함한 복수 학문분야의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동 학부(과) 내 모든 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인증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학부 내에 경영학 전공과 경제학 전공으로 나누어져 경영학사와 경제학사를 수여하는 경우 경상학부 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 단과대학 내에서 두 개 이상의 학과가 경영학사와 경영학사 이외의 학사 학위를 각각 수여할 경우, 신입생 모집단위가 별개일 경우에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5) 이에 비하여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에서는 인증의 단위를 학과도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학사 행정 단위가 여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전체 단위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게 하고 있다.(유왕진·김민수 2004)

6) 2012년까지는 경영학 학사과정만 인증하고, 2012년 이후에는 경영학 석, 박사 과정도 교육기관이 원하는 경우 인증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 유사학과

경인원은 교육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경영학사를 수여하지 않는 경영 유사학과(예 : 무역학과, 통상학과, 관광경영학과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25% 이상 개설한 학과

경인원은 전통적 경영학 분야 과목을 25% 이상 개설한 학과는 경영학사를 수여하지 않고 또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와 같은 대학 또는 학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세무학사를 수여하는 세무학과가 개설과목의 25% 이상을 회계학을 포함한 경영학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이 세무학과는 인증신청에 포함되어야 한다.⁸⁾

(5) 학과명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

경인원은 학과명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도 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관광경영학과'도 원할 경우 인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 위 '(3)'의 내용과 다소 배치되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인원 홈페이지의 FAQ답변(2007.7.25일자)에 의하면 경영관련 과목이 25% 이내이며 학사학위 명칭에 '경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과명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의 경우 1년 이내 등 일정 기간 내에 학과명을 변경하겠다는 총장 직인이 날인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증에서 제외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인증기준

경인원은 인증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비전, 미션 및 목표, ② 학습 성과 및 평가, ③ 교육과정과 수업, ④ 학생, ⑤ 교수, ⑥ 시설 및 교육환경, ⑦ 교육개선의 7가지 세부영역으로 구분한 인증기준을 제정하였다.

인증기준에는 경영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양적·질적 요소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기준 내용 중에는 세무학과 또는 세무학전공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전통적 경영학 관련 과목들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홈페이지 FAQ. 답변(2007.8.16)에 의하면 경영대학 내의 학과는 경영학사 이외의 학위를 수여하고 신입생 모집단위를 별도로 하더라도 인증신청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후 모 대학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경영대학내에 있는 학과라 하더라도 경영학사 이외의 학위를 수여하고 신입생 모집단위가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홈페이지 FAQ. 답변(2007.8.16, 2007.5.23, 2007.7.16, 2007.8.16, 2007.8.27, 2007.10.5)

가. 최소 경영학 전공이수 학점 요건

경인원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들의 최소 경영학 전공이수 학점이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4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 기준은 경영학사가 부여되는 복수전공자 또는 이중전공자 등에게도 적용한다.⁹⁾ 그리고 최소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들은 전통적인 경영학 과목 위주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최소전공이수 학점 45학점의 3분의 2 이상은 전통적 경영학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체제에 대해 인증을 하는 것이다.¹⁰⁾

나.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개설 요건

경인원의 인증기준에서는 참여하는 학과나 전공들이 전공필수과목을 총 18학점 이상 개설하고, 그 필수학점에는 경영전략,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의 경영학 분야 중 교육기관에서 정한 5분야에서 분야별 1과목, 최소 15학점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학과가 인증제에 참여하려면 회계 분야 과목을 2과목 개설하더라도 최소한 4분야 이상의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전공필수로 개설해야 한다.¹¹⁾ 예를 들면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등을 세무학과와 전공필수로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학 전공자가 이러한 전통적 경영학 과목들을 이수할 경우 기업 관련 세무를 더 깊이 이해하거나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회계, 세법 및 경제학(재정학) 등이 복합된 학제간 학문인 세무학과의 전공필수는 당연히 세무회계, 세법 및 경제학(재정학) 관련 과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세무학과에서 경영학 과목을 4과목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경인원의 인증기준은 세무학과의 정체성 측면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무학과 학사운영 측면에서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요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도입 당시부터 많은 부분을 참고한 AACSB International의 인증에서도 다양한 경영 관련 학문 분야의 참여를 장려하되 참여하는 학과나 전공에 대하여 다양한 경영학 과목을 전공필수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¹²⁾ 경영학 과목의 전공필수 요건은 경인원의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서 특별히 도입한 제도인 셈이다.

다. 인증 핵심계량지표

경인원에서는 인증기준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핵심계량지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9) 부 전공자는 제외함.

10) 경인원 홈페이지 FAQ 답변(2007.10.18)

11)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장단점은 있으나 최소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인원의 견해임.

12) AACSB International(2008).

〈표 1〉 인증 핵심계량지표

계량 지표	내 용
계량지표 1. 최소 전공 이수학점	- 최소전공이수 학점 및 전공필수과목 학점 (45/18학점) - 필수과목의 경영학 6~8개 분야별 이수 현황 (최소 5개 분야+1분야 : 18학점 이상 충족)
계량지표 2. 전공과목 수업현황 및 관리	- 필수과목 수강인원은 60명 이내 (핵심지표)
계량지표 3. 분반	- 과목당 수강인원은 80명 이내 (핵심지표) - 수강생이 80명이 넘는 강좌는 전체 강좌 수의 20%를 넘지 않아야 함. - 부득이한 대규모 강의 시 조교 배정
계량지표 4. 학생/교수 비율	- 학생과 교수 비율
계량지표 5. 교수	- 5.1 : 지난 1년 간 두 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전임·비전임 교수 담당강좌 수 / 전체 강좌 수 비율이 60% 이상 (핵심지표)
	- 5.2 : 이 중 전임 교수 담당강좌 수 / 전체 강좌 수 비율이 40% 이상 (핵심지표)
	- 5.3 : 전임·비전임 교수의 강의부담은 학부·대학원 강의를 포함하여 학기 당 4과목,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됨.
	- 5.4 : 지난 1년 간 두 학기에 경영학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해당 강의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강의한 강좌의 비율이 총 개설강좌 수 대비 80% 이상 (핵심지표)
	- 5.5 : 이 중 경영학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강의한 강좌의 비율은 총 개설 강좌 수 대비 70% 이상 (핵심지표)
계량지표 6. 시설 및 장비	- 시청각 교육 설치 현황 - 학생 대비 컴퓨터 확보율 (학생 20명 당 1대) - 연구실 현황
계량지표 7. 행정 지원 및 교육 보조	- 직원 현황 - 행정 조교를 포함한 인원 현황 (학생 200명 당 직원 1명)

4. 인증 절차

경인원은 예비심사, 자체평가보고서 심사, 심사, 인증 심의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경인원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7가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7가지 인증기준에 다소 부족하거나 6개 기준만 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2년간 유효한 예비 인증 ‘가’ 또는 ‘나’를 부여한 후, 2년 후에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세무학과의 편제, 학사학위 명칭 및 교과과정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인원의 인증기준에는 교육의 질과 관련한 매우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각 대학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의 질은 분명히 크게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기준들 중에는 “경영학과” 이외의 경영 관련 학과들, 특히 세무학과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항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영학 분야 전공필수 과목 요건이다. 즉, 모든 인증제 참여 학과들이 전통적 경영학 분야들 중 5개 분야 이상에서 최소한 1과목 이상씩 총 18학점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현재 전국의 세무학과들 중에서 이러한 전공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무학과의 이러한 경영학 분야 전공필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세무학과는 경인원의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경인원에서는 경영학사를 수여하거나,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나 전공과 같은 대학 또는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 또는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25% 이상 개설하고 있는 학과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인증신청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교 전체가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단 전국의 세무학과들의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각 세무학과들이 경인원의 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세무학과의 편제 및 학사학위 명칭 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세무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및 창원대학교 등이 있으며, 학부내에서 세무학전공으로 개설된 대학교는 강남대학교(부동산세무학부), 대구대학교(회계세무학부) 및 대전대학교(회계세무학부) 등이 있다. 이들 세무학과 또는 세무학전공이 한국경영학교육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들 학과 또는 전공의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여 세무학과 또는 세무학전공들의 한국경영학교육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대학교,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및 창원대학교의 세무학과(전공)는 경영학사를 수여하므로 당연히 경인원의 인증대상이 된다.

그러나 강남대학교,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및 창원대학교의 경우는 세무학과(전공)의 학사학위 명칭을 세무학사로 변경한다면 편제나 학사학위 명칭 측면에서는 경인원의 인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와 신입생 모집단위를 별도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계명대학교의 세무학과는 학사학위 명칭을 경영학사에서 세무학사로 변경하더라도 같은 단과대학 내의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와 신입생 모집단위가 동일하므로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¹³⁾

둘째, 대구대학교 회계세무학부 세무학전공의 경우 세무학사를 수여하고 있고, 같은 학부내의 회계학과는 회계학사를 수여하고 있으며,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경영학과와 경상대학 내에 같이 있지만 신입생 모집단위가 다르므로 편제나 학사학위 명칭 측면에서는 경인원의 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와 경우 세무학사를 수여하고 있고, 소속 단과대학인 도시과학대학 내에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나 전공이 없으므로 편제나 학사학위 명칭 측면에서는 경인원의 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각 대학 세무학과와 편제 및 학사학위 명칭

	단과대학 또는 계열	모집단위	학과 또는 전공	학사학위
강남대학교	제Ⅱ대학	부동산/세무학부	세무학전공	경영학사
			부동산학전공	부동산학사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경영정보학전공	
		경제통상학부	무역학전공	경제학사
			경제학전공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법학사
			행정학전공	행정학사
건양대학교	경상계열	세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관광학과		
		금융·국제학과		
		기업정보관리학과		
		전자상거래무역학과		
	보건산업계열	병원관리학과		

13) 물론 인증을 위하여 신입생 모집단위를 학과 단위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단위는 대학교 전체의 입시정책 및 학사운영 방향과도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표 2〉 각 대학 세무학과의 편제 및 학사학위 명칭 (계속)

	단과대학 또는 계열	모집단위	학과 또는 전공	학사학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대학	세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회계학과	
남서울대학교	상경제열	세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통상학과		
		부동산학과		
		유통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회계·세무학부	세무학전공	세무학사
			회계학전공	회계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경제학과		경제학사
		관광경영학과		관광학사
		무역학과		무역학사
		보험금융학과		보험금융학사
		호텔관광학과		관광학사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세무학전공	경영학사
			회계학전공	
		경영학과		
		무역통상학과		
		물류유통학과		
		병원경영학과		
		산업광고심리학과		
		경제학과		경제학사
		응용통계학과		

〈표 2〉 각 대학 세무학과와 편제 및 학사학위 명칭 (계속)

	단과대학 또는 계열	모집단위	학과 또는 전공	학사학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세무학사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사
			건축공학전공	공학사
		교통공학과		공학사
		도시공학과		공학사
		도시사회학과		사회학사
		도시행정학과		도시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공간정보공학과		공학사
		조경학과		조경학사
		환경공학부		공학사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사
		경제학부		경제학사
창원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경영학사
		경영·회계학군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제·국제무역 · 금융보험학군	경제학과	경제학사
			국제무역학과	
			금융보험학과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의 2008학년도 입시요강과 각종 대학안내 자료 등을 참조하였음.

2. 세무학과와 교과과정 현황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서는 비록 경영학사를 수여하지 않는 학과라 하더라도 개설과목 중 전통적 경영학 과목이 25%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인증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학과에서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최소한 5분야 이상에서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씩 개설하되 총 18학점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하여야 한다. 또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이수학점은 45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각 대학 세무학과들의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을 어느 정도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편의상 분석대상 대학은 세무학과가 개설된 5개 대학(건양대, 계명대, 남서울

대, 서울시립대, 창원대)에 국한하였으며, 분석대상 학기는 2007년도 2학기과 2008년 1학기로 하였다. 그리고 과목은 교과과정에 수록에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개설한¹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내지 <표 7>은 5개 세무학과에서 실제 개설한 전공과목들을 분야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분야는 크게 경영학 분야(회계 제외), 회계 분야(명백한 세무회계 과목 포함), 세무A 분야(과목 명칭에는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으나, 실제 내용상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세무 과목), 세무B 분야(과목 명칭에도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고, 실제 내용상으로도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무 과목) 및 기타 분야의 5개 분야로 나누었다. 또 전공필수 과목은 중고딴체로 표시하였으며,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은 괄호로 표시하였다.

<표 3>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과목 개설현황(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학기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학점 ⁶⁾
1-1		**회계원리 ⁵⁾			민법총칙 ⁵⁾	7
1-2		기업회계기준해설		세법총론 ⁵⁾		6
2-1		재무회계 ⁵⁾	**소득세법 ⁵⁾ **간접세법 ⁵⁾ 재산세법		세무국어	17
2-2		중급회계 전산회계실무	**법인세법 ¹⁵⁾		세무영어 경제학원론 상법	19
3-1	경영학원론	원가회계 ⁵⁾ 전산세무실무	법인세법2 ⁵⁾ 지방세법		재정학	18
3-2	재무관리	관리회계	직접세법 법인세조정실무		어음수표법	15
4-1		세무회계 회계감사		세무학연구 세법판례연구		12
4-2		재무제표분석		조세정책론 국제조세론 비교조세법 세무관리		15
학점 계	6 (5.5%)	34 (31.2%)	27 (24.7%)	21 (19.3%)	21 (19.3%)	109 (100%)

1) 경영 : 전통적 경영학 8개 분야 중 회계를 제외한 과목

2) 회계 : 과목 명칭 상으로 '세무회계'가 명백한 과목을 포함한 회계 과목

14) 경인원에서는 교과과정표에 수록된 과목이 아닌 실제 개설과목을 기준으로 인증 대상 여부 등을 판정한다.

- 3) 세무A : 과목 명칭에는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으나, 실제 내용상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세무 과목
- 4) 세무B : 과목 명칭에도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고, 실제 내용상으로도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무 과목
- 5) 전공필수 과목
- 6) 과목명 앞에 ‘***’ 표시를 한 과목은 4학점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3학점임.

〈표 4〉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과목 개설현황(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학기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학점 ⁶⁾
1-1	(경영학의이해) (기업과정정보관리)	(회계학의이해)				
1-2	(현대사회와경영 윤리)				(경제학의이해)	
2-1		재무회계원리 관리회계원리	부가가치세법	조세법개론	세무영어1 세무전산실무1	18
2-2		원가회계 전산회계1	법인세법 ¹⁾ 소득세법		재정학 세무영어2	18
3-1		회계학연습 전산회계2	법인세법2 재산세법 소득세연습		기업영어	18
3-2	통합경영관리	전산세무	법인세연습	국제조세론 조세법연습	기업영어연습	18
4-1				세무학인턴십		3
4-2						
학점 계	3 (4.0%)	21 (28.0%)	21 (28.0%)	12 (16.0%)	18 (24.0%)	75 (100%)

1)~5) : <표 3> 참조

6) 모든 과목은 3학점임.

7) 괄호 안의 과목은 일반교양과목이지만 계명경영학교육인증제를 통하여 모든 경영대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하게 지도함. 그러나 교양과목으로 지정한 관계로 본 표에서 학점 수에는 합산하지 않았음.

〈표 5〉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과목 개설현황(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학기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학점 ⁶⁾
1-1	경영학원론 ⁵⁾	회계원리 ⁵⁾				6
1-2			세무학개론 ⁵⁾		경제학원론 ⁵⁾ 민법	9
2-1		중급재무회계 ¹⁵⁾	부가가치세법	조세법총론 ⁵⁾	세무정보론	12
2-2		전산회계 ⁵⁾ 원가회계 중급재무회계2	소득세법		상법	15
3-1		관리회계	법인세 ¹⁵⁾ 재산세세법 *소득세실무	지방세법	재정학 *세무영어실습1	19
3-2		전산세무회계	법인세법2	국제조세법 세무정책론 관세법	*세무영어실습2	17
4-1	재무관리 경영분석	*세무회계실무	*세무정보처리실습	*세무세미나 조세판례연습	행정법	18
4-2		회계감사 회계학연습	*세무조정실무	*세무조사실무		10
학점 계	9 (8.4%)	29 (27.4%)	24 (22.6%)	22 (20.8%)	22 (20.8%)	106 (100%)

1)~5): <표 3> 참조

6) 과목명 앞에 ‘*’ 표시를 한 과목은 2학점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3학점임.

〈표 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과목 개설현황(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학기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학점 ⁶⁾
1-1		세무회계원리	세무학개론		민사법1	9
1-2				미시조세론 ⁵⁾	민사법2	6
2-1				조세법총론 ⁵⁾ 거시조세론	민사법3	9
2-2			법인세법 ⁵⁾ 부가가치세법	조세경제론		9
3-1		세무회계 ¹⁵⁾ 세무회계2	소득세법	관세법 조세행정론		15
3-2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제조세법		6

〈표 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과목 개설현황(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계속)

학기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학점 ⁶⁾
4-1				지방세론 조세절차법 세무세미나		9
4-2			지방세법	세무경영론 조세법연습 조세헌법		12
학점 계	0 (0.0%)	9 (12.0%)	18 (24.0%)	39 (52.0%)	9 (12.0%)	75 (100%)

1)~5) : <표 3> 참조

6) 모든 과목은 3학점임.

〈표 7〉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과목 개설현황(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학기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학점 ⁶⁾
1-1	경영학원론		(생활세금의이해) ⁷⁾			3
1-2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6
2-1		재무회계1	소득세	조세통칙법 ⁵⁾ 조세와국민경제	회사법	15
2-2		재무회계2	부가가치세 ⁵⁾ 세무자료처리론 재산세제	조세정책	재정학	18
3-1		소득세회계 원가회계	법인세1	조세론 ⁵⁾ 국제조세원론	지방재정론	18
3-2		간접세회계 관리회계	법인세2 ⁵⁾ 지방세법	국제조세법		15
4-1						
4-2						
학점 계	3 (4.0%)	21 (28.0%)	21 (28.0%)	18 (24.0%)	12 (16.0%)	75 (100%)

1)~5) : <표 3> 참조

6) 모든 과목은 3학점임.

7) 생활세금의이해는 교양과목(핵심교양)으로서 본 표에서는 학점 수에 합산하지 않았음.

가. 전통적 경영학 과목의 25% 초과 여부

<표 3> 내지 <표 7>의 내용 중에서 각 대학 세무학과와 분야별 개설과목 비율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세무학과와 분야별 전공과목 개설 비율

대학	분야						경영+회계	경영+회계+세무A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계		
건양대	6 (5.5%)	34 (31.2%)	27 (24.7%)	21 (19.3%)	21 (19.3%)	109 (100%)	40 (36.7%)	67 (61.4%)
계명대	3 (4.0%)	21 (28.0%)	21 (28.0%)	12 (16.0%)	18 (24.0%)	75 (100%)	24 (32.0%)	45 (60.0%)
남서울대	9 (8.4%)	29 (27.4%)	24 (22.6%)	22 (20.8%)	22 (20.8%)	106 (100%)	38 (35.8%)	62 (58.4%)
서울시립대	0 (0.0%)	9 (12.0%)	18 (24.0%)	39 (52.0%)	9 (12.0%)	75 (100%)	9 (12.0%)	27 (36.0%)
창원대	3 (4.0%)	21 (28.0%)	21 (28.0%)	18 (24.0%)	12 (16.0%)	75 (100%)	24 (32.0%)	45 (60.0%)
평 균	4.2 (4.8%)	22.8 (25.9%)	22.2 (25.2%)	22.4 (25.5%)	16.4 (18.6%)	88.0 (100.0%)	27.0 (30.7%)	49.2 (55.9%)

- 1) 경영 : 전통적 경영학 8개 분야 중 회계를 제외한 과목
- 2) 회계 : 과목 명칭 상으로 '세무회계'가 명백한 과목을 포함한 회계 과목
- 3) 세무A : 과목 명칭에는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으나, 실제 내용상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세무 과목
- 4) 세무B : 과목 명칭에도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고, 실제 내용상으로도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무 과목

<표 8>에 의하면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4개 대학의 세무학과들이 경영 분야와 회계 분야 과목의 개설비율의 합계가 25%를 넘어 30% 대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과목의 성격상으로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세무A 분야까지 합할 경우에는 서울시립대도 36%가 되며 다른 4개 대학은 거의 60% 내외의 높은 수준이 된다.

따라서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4개 대학 세무학과는 학사학위 명칭이나 편제와 관계없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이 개설과목의 25% 이상이기 때문에 경인원의 인증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와 경우에는 세무A 분야에 속하는 과목들의 성격에 따라 인증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나. 전통적 경영학 과목의 전공필수 학점 및 분야

<표 3> 내지 <표 7>의 내용 중에서 각 대학 세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과 과목 수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세무학과의 전공필수과목 개설 현황

대학	개설학점 (과목 수) ¹⁾											전통적 경영학 과목 계
	경영 전략	경영 정보	국제 경영	마케팅	생산 운영	인사 조직	재무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건양대	-	-	-	-	-	-	-	6 (2)	15 (4)	3 (1)	3 (1)	6 (2)
계명대	-	-	-	-	-	-	-	-	3 (1)	-	-	-
남서울대	-	-	-	-	-	-	-	6 (2)	6 (2)	3 (1)	3 (1)	6 (2)
서울시립대	-	-	-	-	-	-	-	3 (1)	3 (1)	6 (2)	-	3 (1)
창원대	-	-	-	-	-	-	-	-	6 (2)	6 (2)	-	-
평균	-	-	-	-	-	-	-	3.0 (1.0)	6.6 (2.0)	3.6 (1.2)	1.2 (0.4)	3.0 (1.0)

1)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등의 기초과목을 경인원에서는 전통적 경영학 필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본 표에서도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등의 기초과목은 전공필수 개설과목에서 제외하였음.(경인원 홈페이지 FAQ 답변 2007.11.7)

2) 회계 : 과목 명칭 상으로 '세무회계'가 명백한 과목을 포함한 회계 과목

3) 세무A : 과목 명칭에는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으나, 실제 내용상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세무 과목

4) 세무B : 과목 명칭에도 '세무회계'라는 용어가 없고, 실제 내용상으로도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무 과목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대학 세무학과에서는 모두 전공필수 과목을 회계, 세무A, 세무B 및 기타 분야 과목 중에서만 개설하고 있다. 회계를 제외한 경영학 분야 과목은 단 한 과목도 전공필수로 개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¹⁵⁾ 전공선택으로도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다. <표 3>내지 <표 7>에 의하면 경영학원론을 제외하면 건양대에서 '재무관리'를, 계명대에서는 '통합경영관리'를, 남서울대에서는 '재무관리'와 '경영분석'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고, 창원대에서는 경영학원론만

15) 남서울대학교에서는 경영학원론을 전공필수로 개설하고 있고, 계명대학교에서는 경영학의 이해, 기업과정보관리, 현대사회와경영윤리 등의 경영학 분야 과목을 일반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1학년들이 수강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경인원에서는 이러한 기초과목들은 경영학 전공필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에서는 경영학원론조차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세무학과들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5개 분야 이상 최소 18학점 이상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경인원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려면 회계를 제외한 경영학 분야 중 최소한 4개 분야에 서 한 과목씩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는 특단의 교과과정 개편을 해야만 한다. 또 계명대, 서울시립대, 창원대의 경우에는 회계 분야의 한 두 과목을 전공필수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

한편, 경인원에서는 최소전공이수학점이 45학점 이상이면서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은 학생 개개인이 전공최소이수학점(45학점 이상) 중 3분의 2 이상을 전통적 경영학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일단은 전공최소이수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전통적 경영학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건양대와 남서울대의 경우 세무A 분야 과목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30학점 이상 개설하고 있고, 계명대와 창원대의 경우에도 경영학 과목을 네 과목 전공필수로 개설한다면 30학점을 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회계 이외의 경영학 과목을 4과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더라도 세무A 분야 과목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전통적 경영학 과목이 30학점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30학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회계 과목을 세 과목 정도 추가 개설해야 한다.¹⁷⁾

한편,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한다고 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이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은 아니다. 전공선택이기 때문이다. 전공최소이수학점(45학점 이상)의 3분의 2이상을 전통적 경영학 과목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세무학교육 측면에서 본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개선방안

1. 세무학의 학문 분야와 교과과정¹⁸⁾

가. 세무학의 학문 분야

세무학은 조세에 관한 종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학의 학문 영역은 크게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법학 등으로 나누어진다.¹⁹⁾ 조세정책학은 조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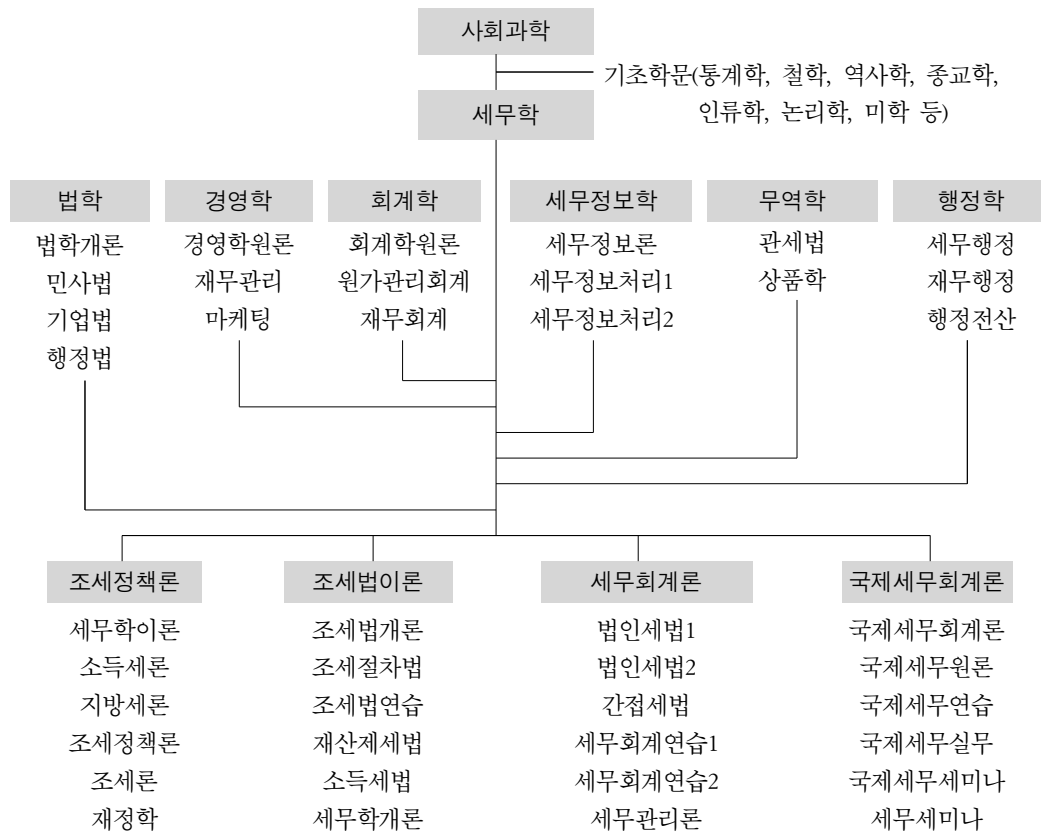
16) 경인원 홈페이지 FAQ 답변 2007.10.18.

17)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이미 세무학사를 수여하고 있고, 편제도 도시과학대학에 소속되어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가 같은 단과대학에 없으며, 교과과정도 세무A 분야를 제외한다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이 1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굳이 경영학 과목을 네 과목씩이나 전공필수로 추가로 개설하고 회계 과목을 세 과목이나 추가로 개설하여 경인원의 인증을 받고자 시도하는 것보다, 현재 세무A 분야 과목이 세무회계로 간주되지 않도록 과목의 성격만 분명히 하여 경인원의 인증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18) 서희열(1999)을 중심으로 요약·인용하고,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가 설명과 분석을 추가하였음.

접근하는 연구분야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 시킨 것이 조세법학의 분야가 되고 이러한 제도의 활용하에서 회계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무회계학이다. 이 밖에도 세무학의 학문 분야에는 조세의 재정학적인 연구(조세론), 국민경제적 연구(국민소득론), 경영학적 연구(세무관리) 및 행정학적 연구(세무행정학) 등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무학의 학문 분야를 계통도로 나타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세무학 학문 계통도²⁰⁾



나. 세무학과와 교과과정

오늘날 조세부담의 현저한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 특히 경제영역에서는 조세전문인력의 수요가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상계열학과의 교과목으로는 세무전문인력을 제대

19) 최명근(1998), 이준규·김갑순(2001) 등의 연구에서도 세무학의 학문 분야를 대체로 이 세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

20) 서희열(1999).

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에 전국의 4년제 대학 세무학과들에서는 경제학적 이론으로 접근하는 조세정책, 정부와 국민간의 조세관계를 법학적 이론으로 접근하는 조세법, 조세법에 근거하여 회계학적으로 조세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세무회계 등에 관한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세무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과목으로서 경제학, 법학, 회계학 및 세무학 관련 전공과목을 교육함과 동시에 세무처리의 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세무정보와 그 전산처리 능력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방화 시대를 맞아 경제거래의 국제화로 세무문제도 국제화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세무전문지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제세무이론과 실무의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무학과 교육목표와 주요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서희열(1999)의 “세무학의 정립과 세무학과 교과과정 개편시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세무학과 교육과정 개편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편시안을 <표 3> 내지 <표 7>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4년제 대학 세무학과 교과과정 개편시안상 교과목의 재분류

학기	경영 ¹⁾	회계 ²⁾	세무A ³⁾	세무B ⁴⁾	기타	학점 ⁶⁾
1-1	경영학원론 ⁷⁾		세무학개론 ⁷⁾			6
1-2		회계학원론 ⁷⁾			경제학원론 ⁷⁾	6
2-1		중급회계 원가회계	간접세법 ⁵⁾	조세법개론 ⁵⁾ 소득세론	*민사법	17
2-2		관리회계	법인세법 ¹⁵⁾	조세이론 ⁵⁾ 조세절차법	*기업법	14
3-1	*재무관리		소득세법 ⁵⁾ 법인세법2	국제세무원론 ⁵⁾ *관세법	재정학	16
3-2		세무회계연습1	재산세법 ⁵⁾ 세무정보처리실습1* 세무정보론	세무관리론 ⁵⁾ 국제세무관리론 지방세법		18
4-1		*세무회계연습2	*세무정보처리실습2	국제세무실무 ⁵⁾ 세무세미나		10
4-2		국제세무회계연습	*세무조정실무	조세정책론 ⁵⁾ 조세법연습 졸업논문 ⁵⁾		11
학점 계	5 (5.1%)	20 (20.4%)	25 (25.5%)	38 (38.8%)	10 (10.2%)	98 (100%)

자료 : 서희열(1999)의 ‘세무학과 교과과정 개편시안’을 <표 3> 내지 <표 7>과 같은 기준으로 재분류함.

1)~4) : <표 3> 참조

5) 전공필수과목임.

6) 과목명 앞에 ‘.’ 표시를 한 과목은 1학점이고, ‘*’ 표시를 한 과목은 2학점이며,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3학점임. 또 세무정보처리실습1은 1학점에 2시간 수업이고, 세무회계연습1, 세무정보처리실습2, 세무조정실무, 세무회계연습2는 2학점에 4시간 수업이며, 졸업논문은 학점과 수업 없이 pass/fail 과목임.

7) 전공기초과목임.

<표 10>에 의하면 세무학과 교과과정 개편시안의 과목들 중에서 경영 분야 과목이 5학점(경영학원론, 재무관리)으로 5.1%, 과목 명칭상으로 세무회계가 명백한 과목을 포함한 회계 분야 과목이 20학점으로 20.4%를 차지한다. 따라서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A 분야 과목들을 제외하더라도 전통적 경영학 과목이 전체 전공과목의 25%를 상회함으로써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세무회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A 분야 과목까지 합할 경우 전통적 경영학 과목 비율은 51%로서 전체 과목의 절반을 넘게 된다. 따라서 세무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서희열(1999)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적인 세무학과 교과과정 역시 다수의 회계 분야 과목으로 인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세무학교육 측면에서 본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개선방안

가. 세무학과의 인증 대상에서의 제외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4년제 대학 세무학과의 표준적인 교과과정에 회계를 제외한 경영학 관련 과목은 전공기초 또는 전공선택과목으로 ‘경영학원론’과 ‘재무관리’ 단 두 과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전공필수 과목으로는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고 있다.

또 제Ⅲ장에서 살펴 본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의 실제 교과과정들도 <표 10>의 교과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각 대학 세무학과들이 세무학의 3대 학문 분야 중 어떤 분야를 더 중시하는가, 또는 회계학이나 경제·재정학, 법학 등의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더 중시하는가 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경영학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대학 세무학과의 교과과정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세무학과의 표준적인 교과과정이나 실제 교과과정 모두에서 세무학과는 매우 다양한 세무회계 과목을 전공선택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고 있었다. 또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등과 같이 세무회계 이외의 회계 분야 과목들도 여러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무학과에서 세무회계를 포함한 다수의 회계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은 세무학의 학문 특성과 세무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세무학과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당연한 일이다. 또 세무학과에서 경영학 과목을 거의 개설하지 않는 것 역시 세무학의 학문 특성과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원에서 세무학과가 회계 분야를 포함한 경영학 과목을 전체 교과목의 25% 이상 개설한다고 하여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회계 분야를 포함해서 최소 5개 분야 이상에서 18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을 세무학과와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세무학의 학문적 특성과 세무학과와 교육목표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세무학과는 경영 관련 학과 또는 경영 유사학과일 수는 있으나 경영학과는 아니다. 비록 세무회계가 세무학의 중요한 한 영역이고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가 세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세무학과에서 이러한 과목들을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무학 교육을 위한 것이고, 세무학 교육의 일부로 교육하는 것일 뿐 경영학을 교육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세무학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경영학적 지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세무학은 이미 경영학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학문 분야로 성장하였다. 경영학회와는 다른 세무학회라는 전국적인 수준의 학회까지 결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무학은 세법, 경제학(재정학) 및 회계학(세무회계)을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학문인데, 현재의 경영학교육인증제는 이러한 학제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부정 또는 어렵게 하고 있다. 세무회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경영학교육인증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세법이나 재정학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경영교육인증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나중에 “경제학교육인증제”나 “법학교육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생긴다면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세무학과를 독립 학과나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다. 많은 세무학과 졸업생들이 세무사나 세무공무원 등 세무전문가로 진출하기도 하고, 기업체에 취업하여 일반적인 경영관리 업무가 아닌 세무 또는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 대학의 세무학과들은 회계 및 세무 과목으로 특화된 교과과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세무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각 대학 신입생모집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서울시립대학교, 창원대학교 및 건양대학교 세무학과와 경우 해당 대학교 입시에서 인문계열 모집단위 중 신입생 입학성적이 가장 높은 학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²¹⁾

이러한 세무학의 학문적 특성과 세무학과와 교육목표, 정체성 및 운영성과 등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세무학과가 스스로 인증제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한 세무학과를 한국경영학교육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일부 대학에서 국제통상학과로 불리기도 하는 무역학과와 경우 이미 경영학교육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2007년도에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은 선례도 있다. 무역학과 경영학의 관련성 보다 세무학과 경영학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세무학과도 무역학

21) 서울시립대학교, 창원대학교, 건양대학교 홈페이지 입시자료 참조.

과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²²⁾

세무학과를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과목의 25%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이면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는 현재의 인증 제 범위에 관한 경인원의 기준 또는 견해를 폐지 또는 철회하거나, 아니면 “25% 이상”을 “60% 이상” 정도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완화한다. 25% 기준은 AACSB International 인증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그러나 AACSB International 인증에서는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5분야 이상 18학점 이상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경인원이 ‘외부 인증 및 평가기관의 기준과 연계’라는 인증제 목표 차원에서 25% 기준을 채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에서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개설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원에서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요건을 폐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25% 기준이라도 포기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경영학 전공필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영 관련 학과 또는 유사 경영학과들이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공필수 요건의 부담으로 인해 인증제 참여를 꺼려하는 경영 관련 학과 또는 유사 경영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경영학과가 인증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도 되는 셈이다.

둘째, 비록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나 전공과 동일한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신입생 모집단위가 동일한 학과나 전공이라 하더라도 세무학과 같이 학문적 특성이 경영학과 크게 다른 학과나 전공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과 편제나 신입생 모집단위를 정할 때 개별 학과의 교육목표 뿐 아니라 대학교 전체의 교육목표나 신입생 모집 등과 같은 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세무학과가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편제나 신입생 모집단위를 변경하고자 하여도 소속 대학교 전체의 방침에 의하여 그러한 변경이 어려운 대학들도 있

22) 한편, 세무학과를 인증제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같은 논리로 회계학과도 제외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무학은 경영학의 일부라고 하기 어렵지만 회계학은 경영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회계학과 학생들은 회계 이외의 다양한 전통적 경영학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회계 이외의 경영학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회계학은 경영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회계학과가 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계학과에서 회계를 제외한 4분야 이상의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는 것은 회계학과 학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계학과에서 회계를 제외한 전통적 경영학 분야 과목을 4과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한다면 교과과정의 균형을 고려할 때 회계 분야 과목 역시 최소한 4과목 내지 5과목 정도는 전공필수로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부 과정에서 전공필수가 8과목 내지 9과목이나 되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학사운영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계 이외의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4과목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현재의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는 경영학과 가장 가깝다는 회계학과조차 참여하기에 쉽지 않은 제도이다. 회계학과를 비롯한 다양한 경영 관련 학과들의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경영학 과목의 전공필수 요건을 폐지하거나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록 세무학과가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와 동일한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신입생 모집단위가 같다 하더라도 당해 세무학과가 원하지 않는 이상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각 대학 세무학과들은 학사학위 명칭을 경영학사에서 세무학사로 변경하도록 한다. 세무학과에서 졸업생에게 경영학사를 수여하면서 세무학은 경영학이 아니니 경영학교육인증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무학과에서 비록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 분야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영학교육이 아니라 세무학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학사학위 또한 경영학사가 아닌 세무학사를 수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일이다. 이미 서울시립대학교와 대구대학교 등에서는 세무학과 학위를 경영학사에서 세무학사로 변경하였다. 학사학위 명칭은 각 대학에서 결정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 대학의 세무학과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학위를 경영학사에서 세무학사로 변경하여 경인원이 세무학과를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개설 요건의 폐지

세무학과도 넓은 의미에서는 경영 관련 학과 또는 경영 유사학과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다양한 인증기준을 볼 때 세무학과도 이에 참여한다면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인원에서도 참여를 원하는 유사 경영학과는 모두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³⁾

그러나 각 대학의 세무학과들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5분야 이상 18학점 이상 개설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회계는 세무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계의 한 영역인 세무회계는 세무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회계를 제외한 다른 경영학 분야는 세무학의 다양한 인접 학문 중 한 분야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무학과 교과과정 개편시안이나 실제 교과과정에 경영학 과목은 재무관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학과가 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영학 과목을 4과목씩이나 전공과목으로, 그것도 전공필수로 개설한다는 것은 세무학과 정체성 측면에서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인원이 경영학과 뿐 아니라 경영 관련 학과들이나 유사 경영학과들까지도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영 관련 학과나 유사 경영학과들이 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경영학 과목의 전공필수 개설 요건에서 세무학과와 동일한 문제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앞에서 살펴 본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목표에서 경인원은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특성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목표에 대한 설명에서 경인원은 “...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확실적인 교

23) II. 2. 나. (3) 참조.

육프로그램을 갖기 보다는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고유의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경영 관련 학과나 경영 유사학과로 하여금 다양한 경영학과목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특성화라는 인증제의 중요한 목표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경인원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도입 당시부터 많은 부분을 참고한 AACSB International의 인증에서도 다양한 경영 관련 학문 분야의 참여를 장려하되 참여하는 학과나 전공에 대하여 다양한 경영학 과목을 전공필수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²⁴⁾ 경영학 과목의 전공필수 요건은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서 특별히 도입한 제도인 셈이다.

만약 경인원에서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요건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제외한 많은 경영 관련 학과들이나 유사 경영학과들이 계속하여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대학교의 경영학과까지도 인증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다양한 경영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는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인원은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전통적 경영학 과목의 전공필수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많은 경영 관련 학과들과 유사 경영학과들 및 이들 과 같은 대학교의 경영학과들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 론

2005년 11월에 경영학교육의 발전과 경영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설립되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다. 한국경영학교육인증기준에는 교과과정, 교수, 학생, 강의 등 경영학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양적, 질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각 대학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경인원의 인증기준에서는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이 경영전략,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 전통적 경영학 분야의 과목을 최소한 5개 분야 이상, 총 18학점(3학점 기준으로 보면 6과목임)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영학과를 제외한 많은 경영 관련 학과들에서는 학과의 정체성 측면에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도 경인원은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학과, 이들 학과들과 같은 학부나 대학에 소속된 학과,²⁵⁾ 전공과목 중 25%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인 학과, 학과 명칭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 등

24) AACSB International(2008).

을 모두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 중 한 학과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교 전체를 인증하지 않는 기관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들의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경인원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세무학과와 3개 세무학전공을 대상으로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을 검토한 바, 대구대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의 세무학과 또는 전공에서 경영학사를 수여하고 있어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해당되었다.

둘째, 5개 세무학과와 3개 세무학전공을 검토한 바,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모든 세무학과에서 다양한 회계 분야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전통적 경영학 과목 개설비율이 25%를 초과함으로써, 학사학위 명칭이나 편제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실정이다.

셋째, 5개 세무학과 모두 회계 이외의 경영학 과목은 전공필수로는 전혀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선택으로도 일부 대학에서 일부 과목(주로 재무관리)만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5분야 이상 18학점 이상 전공필수로 개설해야 하는 경인원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학마다 최소한 네 분야의 경영학 과목을 전공필수로 추가 개설해야 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회계 분야 과목도 한 두 과목을 전공필수로 추가 지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이 결합된 세무학의 학문적 특성과 세무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세무학과와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세무학과에서 회계 이외의 경영학 과목을 4과목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는 것은 세무학과와 정체성 측면이나 학사운영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요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인원은 세무학과와 학문적 특성과 학과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학사가 아닌 세무학사를 수여하는 세무학과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이상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25% 이상 개설한 학과는 원칙적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현재의 인증 대상 범위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25% 이상'에서 '60% 이상' 정도로 대폭 완화한다. 또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와 동일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신입생 모집단위가 동일한 학과는 원칙적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도 세무학사를 수여하는 세무학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아직도 경영학사를 수여하고 있는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들은 조속히 학위명칭을 세무학사로 변경함으로써 경인원이 세무학과를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학과를 비롯한 많은 경영 관련 학과들과 유사 경영학과들 및 이들과 같은 대학교의 경영학과들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 및 경영 관련 학문 분야의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통적 경영학 과목을 5개 분야 이상에서 18학점 이상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인증 요건을 폐지한다.

25) 다만,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와 신입생 모집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가능하다.

<참고문헌>

-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2006.11. 『경영학교육의 인증기준 및 절차』.
-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2007.8. 『경영학교육 인증기준 및 예비심사 인증신청서 작성편람』.
- 서희열. 1999. “세무학의 정립과 세무학과 교과과정 개편시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4호 : 205 - 244.
- 유왕진 · 김민수. 2004. “한국공학교육인증제도 소개”. IE매거진 제11권 제1호 : 57 - 65.
- 이준규 · 김갑순. 2001. “세무회계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세무학연구 제17호 : 271 - 304.
- 최명근. 1998. 『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 AACSB International. 2008.1. 『Eligibility Procedures and Accreditation Standards for Business Accreditation』.
- 강남대학교. <http://www.kangnam.ac.kr/>
- 건양대학교. <http://www.konyang.ac.kr/>
- 계명대학교. <http://www.kmu.ac.kr/>
- 남서울대학교. <http://www.nsu.ac.kr/>
- 대구대학교. <http://www.daegu.ac.kr/>
- 대전대학교. <http://www.dju.ac.kr/>
- 서울시립대학교. <http://www.uos.ac.kr/>
- 창원대학교. <http://www.changwon.ac.kr/>
-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http://www.kabea.or.kr/>
- AACSB International. <http://www.aacsb.edu/>

Korean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and Taxation Education

Yun Sik Chung*

— <Abstract> —

In November 2005,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KABEA) was established to improve business education in Korea and train a capable man in business. KABEA put in force KABEA accreditation, which is applied to all the departments that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ther departments that belong to the same college. KABEA accreditation is also applied to the departments of which the ratio of business related subjects is over 25%, or the department that include "business" in its name. If any of these departments does not participate in accreditation, the university can not acquire the accreditation in principle. And all these departments should open at least 6 compulsory subjects among 5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which are Strategic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ternational Management, Marketing, Operations Management, Human Resources, Finance, and Accoun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st taxation departments can not avoid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pen several accounting subjects including tax accounting. But they can not acquire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open few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except accounting.

It is not reasonable for taxation department to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as compulsory subjects. So this study suggested that KABEA should exclude taxation departments from accreditation or should not request that the participating departments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Key words>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taxation, department of tax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Taxation, Keimyung University